

한전, 나주혁신도시 이전 말 바꾸기 실패

부지매입 미루고 미루다 결국 “깍아달라”

한국전력공사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의지 부족은 수많은 말 바꾸기와 사업 연기 등을 통해 나타났다.

한전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6월이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07년 말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8년에 착공, 2012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었다. 또 지난 2007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전 계획을 승인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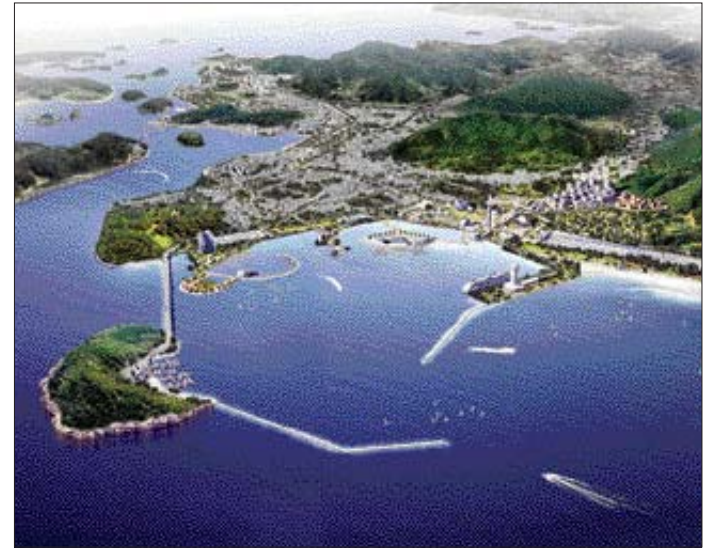
조금은 지연됐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한전의 이전사업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전 작업이 전체적으로 중단됐다.

다행히 한전은 통폐합 대상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이전이 추진됐으나 한전의 이전 의지는 이미 희박해진 상태였다. 때문에 이전 계획 승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이사회에서 이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더욱이 올 2월에는 그 의지를 의심받는 설문조사를 국회 지식경제위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다가 소속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뒤늦게 '한전의 지방이전에 대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사현장.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혁신도시내 핵심 이전대상인 한전이 최근 이주작업을 미루기 위한 조건을 내걸어 비난이 일고 있다.



여수 신항일대 2012세계박람회장 조감도

여수박람회 준비 본궤도

박람회부지 조성 이달 말 착공

교통·관광지원사업도 본격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부지 조성사업이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가는 등 박람회 기반시설 사업과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람회 부지조성 사업이 이달 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고 교통·관광 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도 본격화된다.

박람회 부지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 여수시 수정·덕흥·공화동 일원 40만8천㎡ 부지 내에 있는 819채의 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가 시작됐다.

또한, 지장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4만1천㎡의 폐기물도 파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지역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전남도는 또 박람회 개최지 주변의 여수시 수정동, 공화동, 덕흥동 등 3.6km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10일 해제했다.

교통분야의 경우는 전주~광양·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및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대부분의 SOC 사업이 정상 추진돼 박람회 개최 전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수 화양~적금 간 연륙·연도교와 여수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 등은 목표연도 완공을 위해 재정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분야에서는 '2012년 남해안 방문의 해' 지정과 함께 박람회와 연계한 남해안 권 관광상품 개발 등을 부산·경남·제주·광주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2012 세계한상대회 유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부 지원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여수산단 진입로를 비롯한 광역교통망과 연결도로 및 시내도로 등을 총체적으로 확충해 여수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확보 및 공사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옥마을 등 대체 숙박시설도 중점 육성해 고급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전국 단위의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박람회장 조성, 문화·예술, 관광, 숙박, 교통, 홍보, 손님맞이 사후활용 등 8대 분야에 대해 기획조정실, 관광문화국, 건설방재국 등 13개 실·국에서 90건의 지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박람회 개최가 앞으로 2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전남도 모든 부서가 여수박람회 추진기관이 돼야 한다"며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검토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월 매입”→“내년 매입”→“가계약이라도...”

MB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후 눈치보기

한 의결은'이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전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이전 반대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한전 등 혁신도시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국회에서 이를 쟁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4일 한전 측 관계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이 "한전 본사 사옥 부지 매입을 언제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지금은 막대한 적자 등 (경영상) 특수상황이다. 상반기 경영 호전 상황을 보고 하반기부터 매입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고 답했다.

또 3월 24일 '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 의원모임'(대표 민주당 최인기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김문덕 한전 부사장은 "4월 중 설계 공모를 하고 올 하반기에는 사옥부지 매입에 착수해 애초 계획대로 2012년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혁신도시 이전 기본계획안을 늦추고 늦춰 5월 7일에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최인기 의원은 이와 관련 "한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본사 신사옥의 입찰 방식을 승인받은 뒤 5월 말이나 6월 중에 설계 공모를 발주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한전은 청사 설계 공모에 대해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주최 간담회에서 또 다시 말을 바꿨다. 이도식 관리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최인기 의원이 '한전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자 "7월에는 청사설계를 위한 공모실시하고 10월 중에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한전의 계획은 또 늦춰져 지난 10월 5일에야 청사설계 공모를 했다.

더욱이 한전은 당초 하반기에 하기로 했던 본사 부지 매입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 국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았다. 그러던 지난 10월 12일 한전 김쌍수 사장은 국

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 출석,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아직 본사 이전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자, "현재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급한 사업으로 전용(轉用)하고 있다"며 "내년쯤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의 방침을 또 바꾼 것이다. 이에 김재균 의원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연내 부지 매입을 촉구하자 김 사장은 "의원님의 요청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회 압박이 심해지자 한전은 토지 매입 협상단을 10월 15일 토지공사 추진사업단과 나주 혁신도시건설추진단에 각각 파견했다. 또 8일 후인 23일 김재균 의원에 게 보낸 '혁신도시 내 본사 사옥부지 매입 계획 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해 "혁신도시 내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매입가격 등을 광주도시공사 측과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 올해 안에 가계약이라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주 혁신도시건설추진단 관계자는 11일 "한전은 정부의 방침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수없이 약속을 깨면서 이전을 지연하고 있다"며 "토지 매입 협상에 임하는 태도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전 혁신도시 이전 말바꾸기

▲2월 25일 한전 측 관계자(국회 업무보고) "지금은 막대한 적자 등 (경영상) 특수상황이다. 상반기 경영 호전 상황을 보고 하반기부터 매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3월 24일 김문덕 한전 부사장(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간담회) "4월 중 설계 공모를 하고 올 하반기에는 사옥부지 매입에 착수해 애초 계획대로 2012년 이전을 완료하겠다"

▲5월 8일 한전 측 관계자(최인기 의원에게) "국토해양부로부터 본사 신사옥의 입찰 방식을 승인 받은 뒤 이달 말이나 6월 중에 설계 공모를 발주하겠다"

▲7월 8일 이도식 관리본부장(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간담회) "7월에는 청사설계를 위한 공모 실시하고 10월 중에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 하겠다"

▲10월 12일 김쌍수 사장(국정감사) "현재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급한 사업으로 전용(轉用)하고 있다. 내년쯤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0월 23일 (한전이 김재균 의원에게 보낸 공문) "혁신도시 내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매입가격 등을 광주도시공사 측과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 올해 안에 가계약이라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Large advertisement for 'Seogi Bocheonggi' (Seogi Bocheonggi!) featuring a futuristic cityscape and the slogan '세계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Build the pride of world brand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eogi Bocheonggi and various logos.